

# ‘김용갑 징계유보’ 비난 거세다

한나라당 윤리위원회가 28일 대표의 요청을 받아 ‘광주 해방구’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용갑 의원의 징계를 유보한 것과 관련, 당 안팎에서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의 호남 쟁안기의 진정성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광주·전남지역에서는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확실히 보여주는 일’이라며 실망하는 분위기가 거세다.

한나라당의 소장·개혁파 등은 대부분 강 대표가 전남 사회봉사활동을 대신하겠다고 김 의원에 대해 선처를 요청한 것은 윤리위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며 당 개혁 추진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반발했다. 이 같은 기류는 대선후보 경선과 관련한 당내 역학구도에도 일정 부분 연관되어

원 의원은 또 외부영입까지 해서 윤리위를 채우겠다고 해놓고 윤리위를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라며 “대표의 정치적 개입으로 도덕성 문제에 영향을 주면 어떻게 하나”고 덧붙였다.

‘새정치수요모임’ 대표인 남경필 의원은 이날 S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당이 새롭게 변화하는 차원에서 강 대표가 참정치운동본부도 설치하고 윤리위원장을 외부에서 모셔왔다”며 “같은 일을 이렇게 통합하려 한다면 참정치는 왜 하나냐”고 강 대표를 정면 비판했다.

한나라당 광주시당의 한 관계자도 “호남사람들 대부분이 징계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데 이같은 결과가 나와 실망스러울 뿐”이라며 “이번 일로



최근 여당과 청와대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 가운데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위) 아래는 이날 연합뉴스 한나라당 당사에서 열린 제5차 상임전국위원회 회의 모습. / 연합뉴스

**선거법 위반 4명 기소 광주시의회 ‘뒤송송’**

광주시의회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따른 의원들의 ‘무더기’ 기소로 뒤송송하다.

28일 현재 기소된 의원은 전체 19명 중 4명. 서모 의원은 이미 1심 재판까지 받아 2심 선고를 목전에 두고 있다. 또 S, L, Y 의원 등이 최근 기소된 상태다. 이들의 기소가 주목을 끄는 또 다른 이유는 주류와 비주류간 역학관계에 미칠 영향 때문이다. 서재원 의원과 S, Y 의원은 주류, L 의원은 일반적으로 비주류로 일컬어진다. 때문에 주류 측에서 긴장하는 상황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두 계파의 힘겨루기는 다른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한 윤리위 결정에 소장파 ‘당 개혁역행’ 반발 호남주민들 “한나라 정체성 보여준 일” 실망

윤리위 징계 문제를 둘러싼 여진은 쉽게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이재오 최고위원은 이날 “당 대표가 책임지겠다는 것은 도덕적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라며 “윤리위에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책임질 사안이 아니다”고 강 대표의 ‘십자가론’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게 잘못 해석되면 당 대표 말 한마디에 처리되는 식으로 흐를 수 있고 참정치의 정신에 어긋날 수 있다”면서 “자칫 당이 사당화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장파의 리더격인 원희룡 의원도 “당 대표가 징계하지 말라는 것처럼 개입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다른 분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대표가 벌 받고 끝낼 것이냐”고 비판했다.

‘참정치’ 구호가 헛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인명진 당 윤리위원장은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강 대표의 사회봉사활동 과정에서 (윤리위에 회부된) 해당 의원들이 얼마나 국민에게 반성의 빛을 보이는지 보고 징계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국민이 보기에 해당 의원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변화하려 한다고 느낀다면 징계가 끝났다고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당규에 따라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누가 뭐라 해도 자기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정치권에서 강 대표가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 “한국 대선 경제가 최대 이슈될 것” NYT

### “국민 체감경기 회복안돼 대통령 지지도 하락”

한국의 차기 대선에서 경제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27일 전망했다.

뉴욕타임스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도가 크게 하락한 이유를 경제문제에서 찾으면서 외형적으로 한국경제가 건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국민의 체감경기는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노 대통령이 간과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동아시아연구원의 정한을 연구원의 말을 인용, 노 대통령이 이념적 이슈를 바탕으로 대통령에 당선됐으나 이제는 유권자

들이 이념 문제에 피로를 느끼면서 경제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신문은 지난 대선에 가장 큰 이슈였던 북한문제가 내년 대선에서는 경제에 밀려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야당이 노 대통령이 대북포용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대북접근법에서는 급격한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 결국 경제문제가 가장 큰 대선 이슈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대권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도 “차기대

선의 가장 큰 이슈는 경제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대북포용정책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자신과 당의 입장이지만 포용정책을 중단하거나 거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밝혔다. /뉴욕·연합뉴스

## 국회 계류법안 무려 2,985건 사상 최대... 처리 일정 주목

청와대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철회함에 따라 지 급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던 국회도 정상가동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임명동의안을 둘러싼 대치 때문에 지난 9월29일 본회의에서 일부 법안들을 처리한 이후 두 달 가까이 단 한 건의 계류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28일 현재 국회에는 헌정 사상 최대건수인 2천985건의 법안이 누적,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일단 국회 정상화의 ‘키’를 쥐고 있는 한나라당이 ‘전효숙 카드’ 철회를 계기로 주요 쟁점법안 처리에 협조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간 큰 이견이 없는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 일부 상임위는 정상가동되고 있지만 일

부 상임위에서는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약속대로 사법개혁 관련 법안과 노사관 계산진화 법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이날 오전 상임전국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의 발목을 잡지 않겠다”며 “사화법과 신문법, 국방, 사법개혁법안 등은 상임위 등에서 계속 논의될 것이며 노사관계법 등 기타 여러 법에 대해서도 처리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중으로 진화점축을 갖고 향후 국회일정과 주요법안 심의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서구의회 또 파행 예결특위 구성 편가름

의장 선출 문제로 출범부터 삐걱거렸던 광주 서구의회가 또 다시 파행 운영되고 있다.

28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내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의원들간 의견 차이로 무산됐다.

이번 갈등은 의회가 당초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4명씩 총 8명으로 예결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가 의장을 12명 전원으로 구성하기로 방침을 바꾼 데서 비롯됐다.

8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5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12명일 경우 위원회는 민주당 6명, 열린우리당 4명, 민주노동당 2명 등 민주당과 비 민주당 소속 의원 11명으로 대등한 구도로 구성된다.

이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거부, 예결특위가 구성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행정사무감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p><b>9급 공무원</b> 국가직 서용시 광주시 전년도 채용시험대비</p> <p>12월 1일 입학특고</p> <p>전남고시학원</p>	<p><b>기시</b> 원장 초빙 강의!!</p> <p>12월 2일</p>	<p><b>광주건축 토목학원</b></p> <p>12월 2일</p>
--	---	---------------------------------------

**업소용 냉·난방기 대표 브랜드**

**업소용 냉·난방기 - 쓸수록 돈 버는 센추리**

75% 연료비 절감!

무보증 장기할부

무인료 냉·난방

1588-8717, 062-266-7841

**감시카메라 (CCTV)**

파격가 28,000

설치 간편

100% 성공률

24시간 감시

무인감시

무인감시

100% 성공률

24시간 감시

262-8583